

오토노미즈

에도시대(1603~1867 년)에 도쿠가와 막부는 모든 다이묘에게 막부의 ‘교대출사’ 제도(참근교대)를 따르도록 요구했다. 이에 따라 모든 다이묘는 각자의 영지와 수도인 에도(현재의 도쿄)를 오가며 살아야 했다. 막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에도에 있는 가신과 저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 외에도 교대 시의 여비와 선물 등의 지출을 통해 다이묘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줌으로써 각 번의 다이묘가 너무 강력해지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었다.

쓰가루번의 ‘영주’ 즉 두 번째 번주였던 쓰가루 노부히라(1586~1631 년)는 오마고시 가도(현재의 일본 국도 101 호선)를 지나 에도로 향하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**들판에서 가신들을 쉬게 했다.** 당시 번주들은 가마를 타고 이동했는데, 가마꾼뿐만 아니라 다이묘도 몸을 펴기 위해서 자주 멈춰야 했다. 이런 관습은 노다치로 알려져 있다. 목이 말랐던 노부히라는 가신 중 한 명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, 이때 가신이 이 샘을 발견했습니다. 노부히라가 이 샘의 물을 마시고서는 ‘감로, 감로’, 즉 ‘달콤한 이슬, 달콤한 이슬’ 이라고 칭찬했다고 전해진다. 그 이후로 이 샘은 **‘오토노미즈’, 즉 다이묘의 물로**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